

# 美, 베네수 부통령에 압박 “마두로와 다른 선택하길”

**루비오 美국무, 미국에 협조·협력 촉구  
트럼프 “유익한 변화 보려는 정책 운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 이후 정상 역할을 대행하게 된 멜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해 “마두로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NBC, CBS, ABC 등 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군과 경찰 조직을 책임질 다른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군의 마두로 전격 체포 작전 이후 베네수엘라 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을 명령받았

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현재 향후 2~3주, 2~3개월 동안 벌어질 일과 어떻게 미국의 국가 이익과 연결 지을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전(마두로 때) 보다 더 많은 협조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선 “비록 그에게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음에도 협상이나 합의를 할 수 없었다. 그는 불과 1주일 반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피할 기회가 있었던

며 “그는 어리석은 거래를 하도록 바이든 행정부를 속였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벌며 자신을 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살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궁극적으로 이 일이 베네수엘라의 사회·정치 전 분야에 걸쳐 역사적인 포괄적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더는 마약 밀매가 없어야 하며 이란·헤즈볼라의 존재도 용납할 수 없고, 석유 산업을 이용해 세계의 우리 적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은 더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양한 레버리지(영향력·지렛대) 수단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카리브해 군사력 주둔 및 석유 봉쇄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며 과도기에 직접 통치할 가능성을 밝히면서 운영 조례로 자신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등을 거론한 것이나, 추가 공격 및 미군 주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그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 “내가 이 지역 정치에 상당히 관심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모든 요소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고, 정책 목표는 무엇보다 미국에 유익한 변화를 베네수엘라에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날 비상 내각회의를 주재하며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 등 언급을 한 데 대해 혼란 “우리는 기자회견 발언만으로 앞으

로 행보를 단순히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 사람들이 TV에 나와 특정 발언을 하는지에는 여러 다른 이유가 있다. 정권을 차지했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뉴욕으로 향한지 15시간 혹은 12시간 만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리카스에서 열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석방 촉구 시위에서 한 남성이 마두로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 마두로 경호팀 대부분 미군에 피살…“사망자 80명”

베네수엘라 국방장관 발표 후 NYT, 희생자 추정치 보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 중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수가 미군에 살해됐다고 베네수엘라 측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

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연설에서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 범죄는 어제 그의 경호팀 대부

분인 군인 및 무고한 민간인들이 냉혈하게

살해된 후 자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파드리노 장관은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멜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

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자국 군대가 전국적으로 동원돼 주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베네수엘

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날 미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집계치가 마두로 대통령 경호 인력과 민간인들을 포함해 8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당국자는 사

망자 수 집계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

했다.

미군의 공습 대상 지역 중에는 카리카스

공항 서쪽 해안가의 저소득층 주거 지역인

카티아 라 마르의 아파트 건물도 포함돼.

일부 주민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